



2017년 8월 27일(제838호) 연중 제21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에 관한 본질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합니다.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이”, “따로 선별된 사람”, “하느님의 사람”, “메시아” 즉 “다른 나라의 억압에서 민족을 구원하여 줄 사람” 등으로 해석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한 그리스도의 뜻도 바로 이런 연장선 위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 막강한 권력으로 백성들의 신뢰를 한껏 받고, 이 땅에서 로마의 세력을 몰아내실 분. 다윗왕이나 솔로몬 왕처럼 이스라엘을 평화로 다스리고, 온 천하에 그 명성을 떨칠 왕.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런 기대를 한 번에 무너뜨리십니다. 메시아사상에 한껏 부풀어 있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틀어 버립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시대가 바랐던 힘 있고 능력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 지배층의 배척을 받고 그렇게 간단하게 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 모습이라는 말에 베드로는 필쩍 뚱뚱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 같은 사람을 따라 다니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서 이런 열토당토 않은 설명을 들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베드로에게 기가 찬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느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 세상에 파견된 이, 세상과 사람을 섬기는 이,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람을 섬기러 온 이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된 우리 인간을 위해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는, 그래서 그 죽음 후에 영광스러운 부활로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에 인간을 참여시키는 바로 그런 역할이어야 했습니다. 그분은 인간적인 시선으로 이해되는 단순한 권력과 능력에 찬 위인이거나 영웅이기보다는 하느님의 사랑을 세상과 우리 인간에게 전해주는 역할이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힘없이 죽어가지만, 하느님의 능력으로 부활하는 자. 십자가에서 자신을 낮추어 죽으셨지만, 하느님 생명으로 높이 받들어 올려지는 자. 인간적인 명성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바로 곁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해하던 예수님, 그 제자들로부터 이어져 온 교회 안의 우리가 이해하는 예수님. 오늘날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김현우(기브리엘) 신부
태릉(28시반) 상당 주임

제 1 특 시

이사 22,19-23

회 답 송

◎ 주님, 당신 자애 영원하시니, 손수 빚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제 2 특 시

로마 11,33-36

복음 보호송

◎ 알렐루야

○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승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

복 음

마태 16,13-20

영 성 제 송

주님,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당신은 땅에서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 흥겹게 하는 술을 주시나이다.

진리를 살다

감사기도(II)

감사기도의 역사와 발전, 그리고 그 변천에 대해서는 엄청난 양의 지면이 필요하기에 여기서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감사기도 안에서의 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부분이란 바로 최후만찬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동에 관한 부분인 성찬 제정과 축성문 부분입니다. 미사에 대한 수많은 잘못된 편견과 오해, 오랜 세월을 걸쳐 신앙인의 삶을 일방적인 방향으로 이끌었던 해석, 그리고 편협함과 일방적인 이해 등은 거의 모두 성찬 제정과 축성문에서 기인하였습니다.

실제로 중세 중·후기에는 미사의 이해에 있어서 극단적인 폐해가 백성들 사이에 널리 유포되어 있었습니다. 그 대부분이 감사기도가 중심을 이루는 성찬 전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때 신자들이 거양성체에 맞추어 성당을 옮겨 다니기도 했습니다. 바티칸 공의회 전까지만 해도 사제가 등을 돌리고 미사를 집전하던 시절, 사제가 빵과 포도주 위에 성찬 제정 축성문을 발함으로써 성변화된 성체와 성혈을 들어 올리면 이때 복사는 종을 쳤습니다.(오늘날에도 이 풍습은 여전히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보여주는 이 거룩한 순간을 몇 번이나 보려고 이 성당, 저 성당을 찾아 다니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신자들이

예를준비

알아듣지 못하는 전례 언어인 라틴어 때문이기도 했지만 근본에 있어서는 미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마술적이고 미신적인 해석이 근저에 자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미사는 모든 것, 모든 이를 위한 마술지팡이였습니다. 미사 도중에 사람은 더 이상 늙지 않는다고 믿었으며, 연옥 영혼은 세상에서 자기를 위한 미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연옥의 단련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다고 보았고, 임산부에게 미사는 원하는 착한 아이를 낳게 해주고, 심지어 미워하는 누군가를 없애 버리고 싶으면 그를 위해 위령미사를 봉헌하면 곧 죽을 것이라는 등의 해괴하고 그릇된 편견이 널리 퍼져 있기도 했습니다.

거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미신과 마술적인 해석이 미사와 관련되어 있었고 미사를 가능한 모든 원의를 바칠 수 있는 그러면서 그 보답을 얻어 낼 수 있는 요술방망이도 만들었습니다. 미사의 효과를 일방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사람들은 미사 한 대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알아듣게 했습니다. 미사에물을 많이 내면 낼수록, 미사를 지불하기 위해 기금을 유산으로 많이 남기면 남길수록 영혼이 보다 빨리 천국에 올라간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제 감사기도의 기원과 종류 및 특성, 구조와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최창덕 F.히비에르 / 대구교리신학원 원장
『대구대교구 '빛' 잡지 발췌』

복

음

목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좋은 친구

내 몸 하나
간수하기 힘든
이 절벽에서
웃을 수 있는 건.

내 잃었던 양을
찾아 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녀석의
주인이자
좋은 친구니까요.

상화이야기

리베랄리스, 프란치스코 성인과 함께 계신 옥좌 위의 성모지



27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요절한 지오르지오네는 다작을 하진 못했지만, 남긴 소수의 작품만으로도 자신만의 독특한 분위기와 성향으로 미술사에 큰 족적을 남긴 화가이다. 이 그림은 처음 설치된 경당에 현재까지 걸려져 있는데, 전형적인 사크라 콘베르사지오네(성스러운 대화)를 보여주면서도 그만의 독특한 신비로움으로 가득 찬 그림이다.

성모님은, 물리적으로 인간이 올라갈 수 없는 그러한 옥좌 위에 앉아 계시며, 그 양옆을 보위하고 있는 건 반짝이는 갑옷을 입고 있는 리베랄리스 성인(이 성화가 모셔진 지역의 수호성인)과, 우리에게 상처를 보여주는 프란치스코 성인이다.

성모님의 뒤편으로 왼쪽은 도시, 그리고 오른쪽은 자연의 모습이 보이는데, 도시의 건물들을 포화로 건물들이 망가져 있으며, 오른쪽에는 역시 갑옷을 입은 군인이 등장한다. 등장인물이 기도로 연결된 침묵 속의 성스러운 대화라는 주제는 분명한데, 이 모든 요소가 다 합쳐져 무언가 신비롭고 수수께끼 같은 분위기를 풍긴다.

지오르지오네(1477-1510)
1500-1505년 作,
패널 위 유화 200.5 X 144.5 cm
키스텔 프랑코 주교좌상당, 이탈리아 베네토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21주일: **중무 김민업 신부**

◆ **교구장 동정**

- 동해(육군) 성당 사목방문
 때: 8월 27일(주일)
- 주교회의 선교사목주교위원회
 때: 9월 1일(금) 10:30, CBCK

◆ **신자 진수 조사 관련 교구 안내**

기간: 8월 1일(화)-31일(목) ※ 부대공문 필독
 방법: 국방인사정보체계 입력
 신자기준: 영세자, 예비자, 천주교 관심자
 (실제 종교 활동 여부와 불일치 가능)
 홍보: 지휘관들에게 전수조사 홍보
 주의사항: 아이디는 군번, 비번은 주민등록번호
 이므로 조작되는 일 없도록 주의.

“군(軍) 복음화, 새 열장으로” - “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